



SK주식회사

운영권 확보 美유전 탐사작업 개시



SK주식회사가 세계 석유산업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광구 개발 전권을 갖는 운영권자 자격으로 유전개발에 착수한다.

SK주식회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월 11일부터 미국 현지법인인 'SK E&P 컴퍼니(SK E&P Company)'를 통하여 지분 70%를 확보해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

국 루이지애나주의 북이베리아(Iberia North)광구의 '탐사작업'을 위해 탐사정 시추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SK

신현철 사장, 동탑 산업훈장 수훈



SK주식회사 신현철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11월 9일 KINTEX(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된 '제1회 에너지 주간 행사(Energy Week 2005)'에서 에너지 산업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훈(受勳)했다.

1972년 대한석유공사(現 SK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33년을 국가기간산업인 에너지 산업에 종사해 온 신현철

사장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의 기여, 해외자원개발 사업 강화 및 석유 수출산업화 추진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사회봉사활동 주도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훈장을 수훈하게 되었다.

SK

2005 대한민국 기술대전 대통령상 및 특별상 수상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들을 한자리에 모아 보여주는 2005 대한민국 기술대전에서 SK주식회사가 대통령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기술강국 코리아, 기술이 바로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대한민국 기술대전은 우리나라의 경제 미래를 책임질 첨단 신기술들을 대거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 기술 전시이다.

SK

R&D 20년, R&BD로 또 한번 도약



SK주식회사가 국내 정유사 중 최초로 'R&D 20주년'을 맞았다.

SK주식회사는 지난 11월 11일 최태원 회장, 신현철 사장 등 회사 관계자들과 박인철 대덕연구개발특구 이사장, 최재익 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 등 외부 관계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SK기술원에서 'SK(주) R&D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정유 및 석유화학분야의 기술선도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이 날 기념식에 참석한 최태원 회장은 20년간의 R&D 성과에 대해 현장 연구원들을 격려하면서 "성장의 축으로서 기술선도기업(Technology Driven Company)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블루오션(Blue Ocean)을 개척해 나가자"며 연구원들을 독려했다.

SK

프리미엄 휘발유 'solux' 런칭



SK주식회사에서 2002년 출시되어온 프리미엄 휘발유가 힘과 품격을 갖춘 고급 휘발유라는 뜻의 '솔룩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SK주식회사는 지난 10월 18일 강남주유소에서 솔룩스 런칭행사와 앞으로 솔룩스를 홍보하게 될 도우미, 오렌지의 발대식을 가졌다.

SK

장애인 단체 결혼식 열어



SK주식회사가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우들에게 감동의 결혼식을 선물했다.

SK주식회사는 지난 10월8일 오후 서울 광장동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우 부부 50쌍과 가족 400여명을 초청하여 '행복 결혼식'을 열고, 이들을 위해 만찬과 행복음악회 등을 마련했다.

SK

최태원 회장,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지난 10월25일 최태원 회장과 SK가스, SK엔론 등 그룹 CEO와 우리회사 임직원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을 책임지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SK 행복 나눔의 계절을 맞아 우리회사와 관계사 CEO와 임직원 160여명이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나선 것이다.

SK

임직원들, 소년소녀가장들과 함께 장애인 목욕 봉사 실시



SK주식회사가 지난 10월24일 오후 소년소녀가장들과 함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을 방문해 장애인 목욕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전국소년소녀가장 800명에게 '월동 준비금'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SK주식회사 E&M(Energy & Marketing) 사업부문장 김명곤 전무 등 임직원 30여명과 수도권 지역 소년소녀가장 30명이 참석했다.



GS칼텍스

알킬레이션시설 완공



GS칼텍스는 1,400억 원을 투자하여 옥탄가 97이상 최고급 청정휘발유제품을 생산하는 알킬레이션 공장을 완공했다. 이번에 완공한 알킬레이션 공장은 부탄을 원료로 하여 휘발성유기 물질(VOC)을 획기적으로 저감한 초 저황 (Max 30ppm 이하), 고옥탄가(옥

탄가 97 이상)의 알킬레이트를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알킬레이트는 수질환경오염 논란이 있고 있는 고옥탄 휘발유 첨가제 MTBE를 대체하는 친환경 옥탄 가항상 첨가제로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급 휘발유가 된다.

GS칼텍스

허동수 회장 쉐브론 본사 방문



허동수 회장은 지난 10월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쉐브론 본사를 방문했다. GS칼텍스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쉐브론 본사를 방문한 허동수 회장은 패트리샤 워츠(Patricia A. Woertz) 수석부사장을 비

롯한 짓 빙드라(Jeet Bindra) 글로벌 리파이닝 사장 등을 만나 현안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허동수 회장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쉐브론 다운스트림 타운홀(Chevron Downstream Town Hall)에서 쉐브론 임직원들에게 GS칼텍스의 비전과 사업영역에 대해 소개하고 수익성 증대를 위한 HOU프로젝트 등을 강조했다.

GS칼텍스

허동수 회장 한중일 비즈니스포럼 주관



허동수 회장은 지난 10월 1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차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에 한국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포럼을 주관했다. 한중일 비즈니스포럼은 2001년 ASEAN+3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민간경제협력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발족된 단체로, 이번 포럼에는 한국위원장인 허동수 회장을 비롯해 강진호 전경련 회장, 장자우 CCPIT 부회장, 히라이 가즈히코 도레이 상담역 등 3국 기업인 450명이 참석했다.

GS칼텍스

제2중질유 분해탈황시설 기공식 거행

GS칼텍스는 지난 12월 9일 제2중질유분해탈황시설(HOU: Heavy Oil Upgrading) 기공식을 거행했다. 현재 기본설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제2중질유분해탈황시설은 고유황 중질유인 벙커C를 감압증류시킨 뒤, 수소를 첨가, 분해탈황반응을 통해 등·경유를 비롯한 경질유분과 고급 윤활기유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GS칼텍스는 이를 위해 일산 15만 배럴의 감압증류시설, 그리고 일산 1만7천 배럴의 윤활기유 공장을 함께 건

설할 계획으로, 총 1조 3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 일산 9만 배럴 규모의 제1중질유분해시설(RFC)을 보유하고 있는 GS칼텍스는 제2중질유 분해탈황시설이 완공되는 2007년 말에는 총 14만 5천 배럴의 중질유분해시설을 확보하게 된다.

GS칼텍스

2005 친환경상품전시회 참가



GS칼텍스는 지난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열린 '2005 친환경상품전시회'에 참가해 다양한 친환경상품들을 선보였다.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 유통을 활성화하여 친환경상품의 국내시장 확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린 이번 전시회에 GS칼텍스는 자회사인 GS퓨얼셀이 개발한 가정용 연료전지를 비롯해, 2004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베스트 그린상을 수상한 친환경 엔진오일 'Kixx GI', 황 함량을 대폭 감소시킨 '초저유황경유' 등의 친환경상품들을 출품했다.

GS칼텍스

3억달러 장기 해외채권 성공적 발행

GS칼텍스는 지난 10월 26일 10년 만기의 3억 달러 규모의 장기 해외채권을 발행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바클레이 캐피털(Barclays Capital) 및 메릴린치(Merrill Lynch)등이 공동 주간사가 되어 이번에 채권을 발행했으며 이자율은 10년 만기 미국국채 금리에 1.13%를 더한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GS칼텍스

제1회 GS칼텍스 마스터즈 대회 개최



제1회 GS칼텍스 마스터즈 대회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제주 엘리시안 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총 5억원의 상금이 걸린 이번 대회에는 142명의 국내외 유명 프로골퍼들이 참석하여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이번 대회에는 위창수 선수가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GS칼텍스

광양만권 5·13 자발적 협약 체결



GS칼텍스는 지난 10월 28일 여수대 대회의실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광양만권 5·13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광양만권 5·13 자발적 협약'은 광양만에 인접한 기업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오염물질을 13% 삭감하겠다는 것으로, 이날 협약에 참가한 하진수 생산본부장을 비롯한 광양만권의 15개 사업장 대표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자발적으로 먼지와 이산화질소,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13%(1만 7,274톤)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환경부는 매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원인조사'를 통해 이를 기업들의 이행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천정유

서울사무소 가을산행 및 체육대회 개최



인천정유(주) 서울사무소는 지난 10월 13일 서울사무소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약 100명을 대상으로 복리증진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가을산행 및 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가을산행은 서울사무소에서 집결하여 오전에 관악산을 등반하고, 점심식사 후 각 부서 대항 족구대회를 개최하여 부서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프로그램으로 실시되었다.

에쓰-오일

광주지역 학생 31명에 과학장학금 1천만원

에쓰-오일은 지난 10월 15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6회 '학생고희축제' 개막식에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31명에게 과학장학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 장학금은 '과학을 즐기자'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학생과학축제에서 체험학습 부스를 운영한 중학생 23명에게 30만 원, 고등학생 8명에게 40만 원씩을 지급했다.

에쓰-오일

'챔피언주유소' 운영자 대상 경쟁력 강화 교육



지난 6월 '제 1회 에쓰-오일 챔피언주유소'에 선정된 31개 계열주유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우수주유소 경쟁력 강화 교육'이 지난 10월 28, 29일 대전시 아드리아 호텔에서 열렸다. 우수 주유소의 지속적 변화 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청,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형식과 유통 서비스업계의 성공·실패사례 분석 등을 주제로 심층적인 강의가 진행됐다.

에쓰-오일

전중렬 상무·이용준 과장, 국무총리 표창



에쓰-오일 전중렬 상무와 분해2부 이용준 과장이 LPG의 수요 확대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국무총리 표창과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10월 2일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제 1회 'LPG의 날' 기념식에서 있었다.

에쓰-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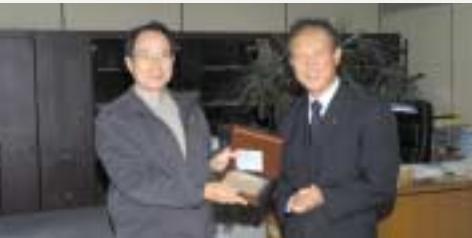
노사회합 체육대회 사우 가족 3천 6백여 명 성황



에쓰오일 노사회합체육대회가 지난 10월 22일 울산 종합운동장(남외동) 보조구장에서 임직원과 가족 3천 6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한층 성숙한 노사문화를 확인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입장식에 이어 9개 종목의 명랑운동회, 자녀 재롱잔치,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사우와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경기에 참여하고 열띤 응원을 펼치며 올해로 5번째 열린 화합의 축제를 만끽했다.

에쓰-오일

퇴직자 모임 '에사모', 회사·노동조합에 감사패



에쓰오일 퇴직시우들의 모임 '에사모(에쓰-오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지난 10월 초 회사에 노동조합에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에사모' 이기근 회장은 "사무실 제공은 물론 매월 후원금 지급 등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퇴직자 복지사업을 후원한 덕분에 회원들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대오일뱅크

서영태 사장, 경기오일뱅크와의 세 번째 만남

현대오일뱅크 서영태 사장이 1년 후에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던 일선 주유소 사장과의 약속을 지켜 눈길을 끌고 있다.

서 사장이 지난해에 이어 현장경영을 위해 방문한 주유소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경기오일뱅크. 평소 영업현장을 찾아 주유소 이용고객들과 주유소 운영자들의 불만사항 및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하는데 관심이 많았던 서 사장은 지난해 경기오일뱅크 오픈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 데 이어 1년 만에 다시 경기주유소를 찾았다.

에쓰-오일

임시주총·이사회 개최…투바이앱 신임 CEO 선임

에쓰오일은 지난 10월 28일 제 30차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공석 중인 대표이사 부회장 겸 CEO에 사미르 에이 투바이앱(47세, Samir A. Tubayeb) 씨를 선임했다.



63빌딩 3층 엘리제홀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는 의결 주식 수의 61.2%가 참석한 가운데 김선동 의장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사내이사 선임 인이 주주들의 동의와 박수로 통과된 직후 김선동 의장은 "투바이앱 이사는 우리 회사의 미래지향적 비전 달성을 위해 중요한 임무를 추진하는데 적합한 우수한 브레인"이라고 소개했다.

현대오일뱅크

자영충전소 대상 해외간담회 실시



현대오일뱅크 LPG부문에서는 지난 10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상해, 항주, 소주에서 자영충전소 우수경영자 34명을 대상으로 해외간담회를 실시했다.

2003년부터 3년째 시행되고 있는 해외간담회는 자영충전소와 당사와의 유대관계 강화에 매우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행사이다. 특히, 이번 중국 간담회는 중국 내 관광을 비롯해 충전소 경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알찬 시간으로 구성돼 더욱 눈길을 끌었다.



현대오일뱅크

직원가족 초청 가을 음악회 개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1월 7일부터 3차례에 걸쳐 회사 임직원과 가족 등 260여명을 정동극장에서 열리는 가을 음악회에 초청해 임직원 가족 사랑을 실천했다.

임직원 사랑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음악회는 현대오일뱅크가 자체 기획한 공연으로, 피아니스트 노영심과 양상불 SEBA가 출연해 가을을 대표하는 곡들을 연주했다.

현대오일뱅크 서영태 사장은 이날 공연에 앞선 인사말에서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임직원이라면, 그 원동력의 근본은 아내와 남편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가정의 화목과 평화”라면서 참석한 임직원 아내와 남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현대오일뱅크

보너스카드 개편 '5감만족 행운 대잔치' 열어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0월 25일 보너스카드 홈페이지 (www.oilbankcard.com) 전면개편에 따라 11월 말까지 보너스카드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5감만족 행운 대잔치'를 펼쳤다.

이번에 개편한 보너스카드 홈페이지에서는 미니 홈페이지를 만들어 자신이 소유한 포인트 적립 현황 및 사용 내역, 개인 정보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마이 오일뱅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또한 '카&라이프'를 주제로 치량에 대한 다양한 정보 콘텐츠와 생방향 커뮤니티를 더욱 강화하여 고객의 접근성과 재미를 최대



화사웠으며, 날씨와 생활 정보, 맛집 정보, 여행 등 레저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구성했다.

현대오일뱅크

자영주유소 사장들의 아름다운 나들이



현대오일뱅크 자영주유소 사장들이 지난 11월 10일 무의탁 독거노인 가정 10여 곳을 방문해 반나절 봉사활동을 펼쳤다.

자영주유소 사장들이 봉사활동에 나서는 것은 흔치 않은 일. 주유소가 생활 터전인 만큼 평일에 주유소 사장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이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주유소 사장들은 하나같이 “독거어르신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삶의 현실이 가슴속으로 다가와 더 많은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마음먹었다.”고 입을 모았다.

SK가스 – 사회봉사활동 참여

SK가스의 김세광 대표와 직원들이 평택시 포승면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안식의 집’을 방문,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

SK가스는 대규모 LPG저장시설이 있는 평택과 울산지역에 소재한 장애인 시설, 아동보호시설, 양로원 등을 선정해 체계적,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지역 복구지원 및 성금전달, 각종 단체에 컴퓨터 기증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평택과 울산 인근의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결식이동을 후원하고 있는 SK가스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직원과 회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일에 참여하는 등 사회의 행복극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동서발전 – 중국 시장개척 지원

한국동서발전은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시장의 판로를 모색하기 위해 대한 PNC를 비롯한 중소기업 9개사를 선정, 개척단을 구성하고 지난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척단을 파견했다.

이번 개척단은 상해지역 전력설비를 견학하고 구매당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 설명회를 가졌다. 또한 중국 발전소의 자재구매 관련 정보 교류와 수출 협작투자와 관련된 개별상담 등도 실시했다.

한국중부발전 – 인천복합화력 준공

총 설비용량 50만3500kW의 인천복합화력발전소가 11월 14일 준공되었다. 인천복합화력은 인천화력본부 부지 내에 총 32만1400kW 가스터빈(2기)과 18만2100kW 증기터빈(1기)으로 구성된 복합싸이클 형식이다. 특히, 인천화력내 부지와 설비를 활용함으로써 사용빈도가 낮은 경유설비와 우회연돌의 설비를 별도로 갖추지 않아 총 사업비의 10% 이상인 300여억원을 절감했다.

인천복합화력의 특징은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발전연료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새로운 CI로 제 2의 도약 선포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현대적 감각의 새로운 CI(기업 이미지 통합)를 마련, 지난 11월 14일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석유품질관리원이 새로 도입한 CI는 관리원의 장기 비전인 ‘21세기 석유산업 발전을 리드하는 세계일류 품질관리기관’으로의 도약을 기본 컨셉으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석유품질관리원의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이미지를 고객에게 심어준다는 취지 하에 개발됐다.

또한 석유품질관리원의 영문 이름 이니셜을 그대로 딴 그래픽형태의 워드마크는 ‘품질’이라는 부분을 강조한 로고로서 석유품질의 향상과 세계일류 품질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 관리원측의 설명이다.

로 사용했고, 저 NOx 버너 채택과 냉각수의 배수관을 해안에서 80m 떨어진 바다까지 연장해 배출하는 심층배수방식을 적용하는 등 친환경발전소로서의 조건을 갖춘 것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가스 하이드레이트 국제심포지엄 개최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산업자원부의 후원으로 개최한 이번 ‘2005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국제심포지엄’은 22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 일반현황 ▲지질학과 지구화학 ▲지구물리학과 탐사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과 공학 등 4개 분야로 나눠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한국석유공사

ERP 프로젝트 준공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10월 24일 공사 대강당에서 Accenture, SK C&C, SAP Korea사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ERP(전 사적 자원 관리) 프로젝트 준공식'을 가졌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선진 경영체제 확립을 목표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으

며, 지난해 10월 대다수 석유 메이저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SAP(기입통합관리 패키지)를 선정해 본격 ERP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ERP 프로젝트의 준공으로 석유공사는 "업무를 Global Standards 수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최근 베트남에서의 원유생산, 나이지리아 대형 유전 획득 등 활성화되고 있는 유전개발사업 분야에서 세계 메이저들과 경쟁하고 파트너로서 보다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는 인프리를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원유 및 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하루 생산하는 원유와 가스량은 2만5000배럴에 달한다. 또한, 최근 광구 운영권 획득 등 공격적인 석유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석유개발사업부문의 위상 강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 이라크석유성 직원초청 교육실시

한국석유공사는 이라크 석유성 직원을 초청, 5주간의 연수를 마치고 지난 10월 26일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경제·컴퓨터, 회계, 재고관리 등 경영전반에 관한 교육과 석유비축시설·정제시설의 산업시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연수생들은 태권도, 민속촌, 난타관람,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체험했다.

세림제지 – 카자흐스탄유전 시추 임박

세림제지가 지난 11월 말 카자흐스탄에서 개발중인 유전중 1차광구 시추작업에 돌입했다. 세림제지는 지난 10월, 3차원 탄성파(SIESMIC) 조사를 통해 가장 유망한 시추지점을 확정하고 11월 말 시추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 다른 1개 광구는 3차원 탄성파 조사를 실시 중이며, 내년 4월께 시추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원유채굴은 탄성파 조사와 데이터 프로세싱후 해석을 거친 뒤 시추공 위치선정과 시추로 절차가 진행된다.

세림제지는 지금까지 사크리마바스와 웨스트보조바 2개 광구에서 탐사작업을 벌여왔으며, 이번에 시추할 광구는 사크리마바스다. 이곳은 1580만평 정도로 여의도면적 17.8배에 해당하며 예상 가채매장량은 1억배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번째 광구인 웨스보조바는 4000만평으로 예상매장량은 4억배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웨스트보조바는 암염층 이하에 예상 매장량의 10배가 넘는 원유가 매장돼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 – 석유개발 사업 주력 부상

SK가 오는 2007년 '원유자급율 10%'라는 목표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석유개발 사업부문이 수익성 면에서도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 들어서만 예멘 LNG와 브라질 BM-C-8광구 등 3곳에서 원유와 가스 생산에 성공하는 등 긍정적인 소식이 잇따라 석유개발사업부문에서의 과실 따먹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SK는 현재 브라질과 예멘 등 8곳에서